

# 칸·베를린 영화제 화제작품 만나볼까

광주극장, 이달 한달간 상영  
다음 소회·성스러운 거미 등  
실화 바탕 수작·스릴러 다채  
해의 매체 극찬 영화들 선배

광주극장이 칸·베를린영화제 등 국제무대에서 극찬을 받은 영화들을 스크린에 올린다.

광주극장은 2월 한 달 동안 △다음 소회 △피터 본 칸트 △성스러운 거미 △타르 △안녕, 소중한 사람 △이마베프 △에프터 썬 △단순한 열정 등을 선보인다.

영화 '다음 소회'는 당찬 열여덟 고등학생 '소회'가 현장실습에 나가면서 겪게 되는 사건과 이를 조사하던 형사 '유진'이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강렬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작 '도화야'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정주리 감독의 신작으로 제75회 칸영화제 비평주간 폐막작 선정 등 해외 우수 영화제 수상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 소회'는 2017년 발생한 전주 콜센터 현

장실습생 자살 사건을 모티브로 삼은 실화 바탕의 영화다. 영화는 고통받는 또 다른 '소회'가 탄생하지 않도록 사회에 목격한 메시지를 던진다.

영화 '성스러운 거미'는 이란 최대의 종교도시 마슈하드에서 16명의 여성을 살해하며 자신의 범죄를 언론에 직접 제보한 이란 최악의 연쇄살인마인 일명 '거미'를 끝까지 추적하는 여성 저널리스트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스릴러다. 감독 알리 아바시가 "이란 내 뿌리 깊은 여성 혐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성스러운 거미'는 이란 최초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 트로피를 수상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영화 '에프터 썬'은 20여 년 전, 아빠와 보낸 튀르키예 여행이 담긴 캠코더를 보며 이제야 알게 된 그해 여름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2022년 칸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됐던 샤희 웰스 감독의 데뷔작이다. '에프터 썬'은 사이트 앤 사운드, 더 가디언, 인디와이어 등 6개 해외 매체로부터 '올해 최고의 영화 1위'에 뽑힌 수작이다.

영화 '단순한 열정'은 202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니에르노의 베스트셀러 동명 원작을 스크

린에 옮기며 한 여자의 거부할 수 없는 육체적 욕망과 탐닉에 대한 이야기를 관능미 넘치면서도 밀도 높게 담아낸 작품이다.

영화 '이마베프'는 한 물건 프랑스 중견 감독 '르네 비달'이 평소 흠모하던 아시아 배우 장만옥을 캐스팅해 고전 무성 뎀타이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담았다. '이마베프'는 프랑스 영화의 저물어가는 명성과 프랑스 영화계를 향한 신랄한 풍자를 기록해 '영화에 관한 명작'이라는 평을 받았다.

영화 '피터 본 칸트'는 성공한 유명 감독과 무명 배우는 서로에게 이끌려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다.

영화 '타르'는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지휘자 '리디아 타르'에 관한 이야기다.

영화 '안녕, 소중한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연인을 둔 '엘렌'이 시한부를 선고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티켓 예매 및 자세한 상영 시간 등은 광주극장 네이버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 亞문화전당, 역량강화 교육생 영상작품 상영

19일까지 ACC 하늘마당 미디어큐브  
이미지 합성기술 활용 3차원 영상 7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수료생들의 3차원 영상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ACC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교육 수료생 중 7명의 작품 7편을 오는 19일까지 하늘마당 미디어큐브에 상영한다.

지난 6일부터 선을 보인 상영작은 ACC가 지난해 말 개최한 '매체확장(언리얼 엔진) 교육' 참여자들이 실시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을 활용해 제작한 3차원 영상 작품이다. 언리얼 엔진(Unreal Engine)은 게임, 영화, 모빌리티,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서 실시간 3D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툴이다.

정승작가 작품 '워킹 언더 문(walking on the moon)'은 우주 개발, 그 이면의 환경 문제를 상기시키며 우주 쓰레기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운다.

윤지민 수료생은 작품 '플로팅(Floating)'에서 동동 떠 있는 내면을 표현했다. 잠들기 전 다양한 생각과 고민으로 붕 떠 있는 기분을 영상으로 구현했다. 이밖에 김수진 '변화', 김은솔 '잇 프롬 비트(it from bit)', 김하린 '리판터 네이처(Refanta nature)', 박시내 '워터 루인스(Water Ruins)', 최한별 '저밀도 수림(Low density forest)' 등 다양한 소재의 영상을 만날 수 있다.

한편 ACC는 새로운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표현 기법 역량 교육'에 더해 올해 'ACC 전문인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말엔 ACC 문화교육 수료생을 위한 관계망 모임인 'ACC 문화교육 동창회'도 계획 중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급변하고 있는 창작개념과 신기술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면서 "배움의 결과를 전당에서 소개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하늘마당 미디어큐브에서 상영되고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문인 역량강화 과정 수료생들의 3차원 영상 작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제공

## '한 야꼬브 특별전' 3월까지 전시 연장

고려인 음악예술에 공헌

월곡고려인문화관이 지난해 3월 시작한 '한 야꼬브 작곡가 특별전'의 호응에 힘입어 오는 3월까지 전시를 연장한다.

월곡고려인문화관은 "관심과 열기에 힘입어 지난해 12월31일 마감이었던 '한 야꼬브 작곡가 특별전'의 운영을 3월말로 연장하고 관람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야꼬브 작곡가는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동포 3세로 고려극장 아리랑합주단 주임지휘자, 알마티 시립민속악단 주임지휘자, 1991년 자신이 창단한 시립재즈악단 '빅밴드' 주임지휘자 등을 역임했고, 수많은 무대음악과 록오페라, 뮤지컬 등을 작곡해 고려인 음악예술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그는 전 세계 거주 디아스포라 고려인동포들이 애창하는 '고려아리랑'을 작곡했으며, 작사자는 현재 고려인문화관을 담당하고 있는 김병학 관장으로 2015년 8월15일 초연됐다.

또한 1960년대 말에는 당시 소련 정부



월곡고려인문화관이 진행하고 있는 '한 야꼬브 작곡가 특별전'을 오는 3월까지 전시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 고려인마을 제공

차원에서 금지시하던 재즈음악을 몇몇 동료와 함께 중앙아시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대중음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2004년 옛소련 전역을 누비며 그때까지 전승되던 고려인 구전가요를 모두 수집하여 집대성함으로써 자칫 사라질 뻔했던 고려인 구전가요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켜냈다.

현재 고려인문화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전에는 한 야꼬브 작곡가의 음악 인생을 조명하는 육필 악보, 증명서, 사진,

신문, 서적 등 30여 점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한 야꼬브 작곡가는 2021년 5월 광주고려인마을에서 개최된 '고려인문화관 개관식' 참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김병학 관장은 "고려인사회의 엘리트이자 민족적 자긍심을 크게 높인 한 야꼬브 작곡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인물이기에 남은 전시기간 많은 관심과 방문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 발레로 듣는 '봄이 오는 소리'

시립발레단, 발레살롱콘서트  
갈라 공연 'Voice of Spring'

광주시립발레단은 오는 3월3일과 4일(금 오후 7시30분, 토 오후 3시·7시) 북구 문화센터에서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살롱콘서트 I 'Voice of Spring'을 선보인다.

2023년 발레살롱콘서트 I 은 박경숙 예술감독이 총 연출을 맡았으며, 여섯 개의 파트로 구성된 갈라 공연이다. 광주시립발레단이 발레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와 감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

3월 공연의 첫 무대는 광주시립발레단 예술부 감독인 키릴자레스키(Kirill

Zaretskii)의 발레 클래스다. 평소 무용수들이 공연에 올라가기 전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리고 발레 마스터는 무용수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연습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기대작으로는 해적 전막 중 관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주역 3인이 선보이는 '그랑 파드 트루와'로 그리스 소녀 메도라와 그녀를 구출하는 해적 콘라드, 콘라드의 충실한 조력자 알리의 활약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알리 역할을 통해 도약과 회전 등 최상의 테크닉이, 메도라의 춤은 우아한 여성미와 더불어 32회전의 현란한 기교가 일품이다.

이외에도 낭만발레에서 고전발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갈라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 예술감독의 해설까지 더해져 발레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총연출을 맡은 박경숙 감독은 "3월에 선보일 올해 첫 공연에서는 발레단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발레 클래스를 비롯한 봄에 어울리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발레살롱콘서트 I 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전석 2만원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광주시립발레단의 차기 공연으로는 3월31일과 4월1일 양일간 발레살롱콘서트 II '단원 안무전'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총 2회 선보일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